

Relining을 통해 배우는 총의치 유지관리 및 보험청구

이 소 현 /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과

의치의 올바른 유지관리는 새로운 의치를 잘 제작하는 것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치과치료의 한 분야이다. 특히, relining은 자연치를 대신하여 의치의 지지를 부여하는 잔존치조제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안정된 의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필수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무치악에 관한 해부학적 이해는 의치와 관련된 매우 기본적인 고려사항이며 치과의사들이 어렵지 않게 relining의 숙련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Relining 수행의 첫 단계인 구강 내 전처치(pre-treatment)는 일반적인 의치 제작 중 인상채득 전에 시행되는 과정과 동일하다. Relining이 필요한 대다수의 환자들은 경증에서 중증도까지 그 정도는 다르지만 의치 지지조직의 변형이나 염증 등의 문제점들이 거의 관찰된다고 볼 수 있다. 의치를 지지하는 구강점막과 자연치의 발거 후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잔존치조골 흡수양상과 대표적인 연조직 병소와 이에 따른 전처치 과정의 숙지는 총의치 치료에 있어 필수적이다.

Relining 술식은 간접법과 직접법으로 구분된다. 간접 이장법은 진료실에서 무치악 치조제의 형상을 인기하고, 기공실에서 의치상 내면을 레진으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직접 이장법은 진료실에서 바로 relining하는 방식으로 구강 내 직접 적용에 대한 숙련도가 요구된다. 올바른 relining을 위해 두 술식에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과 사용되는 재료와 사용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Relining을 포함하여 전후에 의치를 검사하거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의치치료의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의치 제작에 관한 급여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항목에서도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강의를 통해 Relining을 포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유지관리 항목과 적용기준 등을 숙지하여 의치치료에 잘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학력 및 경력

- *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
- *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인턴 및 레지던트 수료
- * 부산대학교 치과보철학 박사
- * 치과보철과 전문의
- * 현, 공직치과의사회 기획이사
 - 대한치과보철학회 전문의고시위원
 - 대한턱관절교합학회 인정의관리이사
 - 대한디지털치의학회 편집이사
 -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 연구이사
 -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부산지부 학술이사
 - 대한심미치과학회 편집실행이사
 -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보철학교실 부교수